

새로 나온 詩集

개같은 날들의 기록

김신용 지음

80년대 중반부터 일기 시작한 노동자 문학의 연장선상에서 도시빈민의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인의 제2시집.

체험에 근거한 시적 내용의 새로움의 차원을 넘어 문학적 형상화와 문체의식의 탁월함으로 주목되고 있는 61편의 시들을 3부로 나누어 묶었다. “우리 사회의 한켠에 존재하는 허기의 문화 혹은 가난의 문화를 그 누구보다도 리얼하게 포착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평론가 정효구씨의 평.

世界社 / B6신 / 166면 / 2500원

에게 에게

박정래 지음

1989년 첫시집 「안녕이란 말대신」을 펴낸 바 있는 시인의 제2시집으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여인, 엄마가 될 여인, 이미 아기엄마가 된 여인”을 위한 이색시집.

딸에 대한 애정을 노래한 ‘문주에게’ 연작시를 비롯해 친숙한 주변풍경과 사람들을 통해 본 시인의 ‘세상읽기’의 모습이 담긴 85편의 시들을 3부로 나누어 묶었다.

문학동신사 / B6신 / 132면 / 2200원

달빛타기

鄭然德 지음

「시문학」으로 데뷔한 이래 「달래江」 「박달재」 「芒種日記」 등의 시집을 펴낸 바 있는 시인의 신작시집.

기형적인 산업화로 인해 빚어진 고향으로서의 농촌의 소외현상, 전통의 소멸, 인간성 상실, 타락한 윤리의식 등을 예리하게 관찰하면서도 ‘살벌한 목적식’이 아닌 인간애에 바탕한 개인체험의 조용한 보편화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많은 인명과 지명, 전통적 소품을 등장시킴으로써 향토적 서사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인문당 / B6신 / 134면 / 2000원

우울氏의 一日

함민복 지음

1988년 「세계의 문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의 첫시집.

주제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이 허락되지 않

는, 의사소통의 경로가 차단된 현실에 대한 무력감을 신선한 상상력으로 詩化한 표제시 연작을 비롯해 “까칠한 지식 나부랭이 다 버리고 / 내 머리 속에 흙 한삽 / 비가 오면 거짓없이 젖는 / 풀 몇포기 자라...” (“흙 속으로 떠나”는 전지훈련(중)와 같이 가파른 현실 속에서의 문학작업을 위한 시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51편의 시들을 모았다.

世界社 / B6신 / 104면 / 2500원

차를 마시면서도 왜 뒤를 돌아보아야 하는가

송현 지음

시인이자 칼럼니스트, 한글기계화연구가로 활동중인 시인의 제3시집.

“이제라도 나는 그대의 진실과 만나고 싶”고 “나의 진실을 그대에게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알몸으로 그대 앞에 서는” 시인의 솔직하고 담백한 언어들이 전편을 메우고 있는데 「불새의 꿈」 「한산섬」 연작시를 비롯해 50편의 시들을 수록했다. 일정한 주제에 얽매이지 않는 선긋은 시인의 목소리가 눈길을 끈다.

작은책 / B6신 / 130면 / 2200원

따뜻한 길위의 편지

박용재 지음

「심상」 신인상으로 등단, 첫시집 「조그만 꿈꾸기」를 펴낸 바 있는 시인의 제2시집.

“나는 우리 시대의 적자다. / 적이 없어 애초부터 / 왕이 되기를 포기한 / 우리 시대 사랑의 시든 꿈이다.” (“허균을 생각함” 중)와 같이 우리 시대에 덧씌워져 있는 불안의 징후와 패배의식 혹은 절망의 모습을 보여준다. 권말에 평론가 이남호씨의 해설을 함께 수록.

世界社 / B6신 / 108면 / 2500원

불빛속에 보이는 어둠은 그냥 어둠보다 더 어둡다

심상우 지음

「현대문학」 천료로 등단한 시인의 첫시집. “흰 빨래의 행렬로 우리들의 / 쓸쓸한 황량한 저녁은 씻겨나가고 / 발길 닿는 곳마다 / 첩첩한 몸살... 낯선 시간 낯선 얼굴로 / 저기 우리가 잠을 죽이고 기다려온 / 목마름 / 태양이 있거니” (“낯선 시간 낯선 얼굴” 중)와 같이

별다른 시적 장치나 기교없이 쉽게 읽힐 수 있는 66편의 시들을 ‘불빛 속에 보이는 어둠은 그냥 어둠보다 더 어둡다’ ‘꽃을 위한 침묵’ ‘지워진 그리움으로’의 3부로 나누어 묶었다.

성현 / B6신 / 124면 / 2500원

길은 끝내 길로 이어지고

원태희 외 지음

중대 문예창작과 동문들로 구성된 「非同人」 제6집.

원태희 · 우영창 · 박영우 · 조재훈 · 강신원 · 김용국 · 오광수 · 이승하 8인의 시 58편을 선보이고 있는데 “현장노동자도 도시빈민도 아니며, 일반대중과 소수 지배층과 분명한 변별점을 갖”는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자신들의 사회적 · 문학적 자리매김을 보여주고 있다. 삶 전반에 대한 예리한 통찰과 그 근원에 대한 끈질긴 질문의 노력이 젊은 시인들 특유의 열정과 패기를 통해 신선함을 느끼게 한다.

문예출판사 / B6신 / 118면 / 2500원

오늘의 운세

유용주 지음

무크지 「문학과 지역」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시작활동을 시작한 젊은 시인의 첫시집.

가난했던 유년체험과 이후 시인의 고단한 사회생활의 궤적들이 서정적이면서도 풍자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힘들게 일하지 말라 / 인생은 일회용 종이컵 같은 것이니라 / 한번 쓰면 지옥행 쓰레기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표제시 연작 18편을 비롯해 69편의 시들을 묶었다.

문학마을 / B6신 / 82면 / 2500원

짧은 사랑

유자효 지음

현재 KBS 외신부 차장으로 재직중인 시인의 제2시집.

첫시집 「성수요일 저녁」 이후 8년만에 펴내는 시집으로 ‘생활’에 굳건히 뿌리내린 중년의 포용력과 파스한 인간애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동유럽과 전쟁과 개혁의 혼란기에 방황하는 중동지역을 취재하며 기록한 치열한 체험의 편린들이 눈길을 끈다.

‘客地의 詩’ ‘四季의 詩’ ‘生命의 詩’ ‘日常의 詩’ ‘故郷의 詩’의 5부로 나누어 69편의 시들을

수록했다.

전예원 / B6신 / 144면 / 2000원

홀로 가는 길

여지량 지음

「시조문학」 천료로 데뷔, 1987년 작고하기까지 시조의 외길을 걸었던 고인의 유고시조선집.

탱자나무 · 나팔꽃 · 함박꽃 · 웅달샘 · 아기별 등을 묘사한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통해 유년시절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한편 전통서정인 恨의 승화를 보여주는 단아한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권말에 평소 고인과 친분을 맺었던 知인들의 추모시와 시조시인 원용문씨의 해설을 함께 수록했다.

山房 / B6신 / 164면 / 2500원

모습없는 사람들

崔承鎬 지음

첫시집 「이상한 사이」 이후 5년만에 펴내는 시인의 제2시집.

동양사상을 바탕으로 神의 문제에 천착한 존재론적 시편들을 비롯해 물질문명의 노예가 되어가는 현대인을 비판하는 이른바 ‘문명비판시’, 우리민족 특유의 당면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한 사회성 짙은 현실고발시, 그리고 평범한 일상사에 대한 애정을 노래한 시편 등 시인의 다양한 시세계를 엿볼 수 있는 74편의 시들을 수록했다. 권말에 시인 박영남씨의 해설을 함께 수록.

시간과공간사 / B6신 / 114면 / 2000원

杜甫씨네 다 큰 애들의 後日譚

李秋林 지음

한국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중견시인의 제6시집으로 30여년간 장시에만 몰두해온 시인의 단시만을 모았다.

돌발적이고 폭발적인 이미지의 연쇄적 연결을 초현실적 수법으로 형상화하는 한편 질박한 향토적 언어를 구사해 현대시의 새로운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시인의 독특한 시세계를 엿볼 수 있다. 제1부 ‘물의 여권’, 제2부 ‘시인사회’로 나눠 98편의 시들을 수록했다.

明文堂 / A5신 / 222면 / 2500원